

강진교육청, 마을공동체 컨설팅 나서

찾아가는 운영교육·컨설팅 서비스 실시 교육공동체 활성화·내실화 지원 방안 모색

강진교육지원청이 지난 12일부터 3일간 2020. 강진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에 선정된 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합교육 대신 각 마을교육공동체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도 함께 참여해 선정된 마을학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컨설팅은 2020.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방향 공유, 2020. 마을교육공동체 계획서 검토 및 예산 편성·운영지침 안내, 현장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혁신팀 담당자는 마을학교

보조금 사범비 집행자집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예를 들어가며 안내했고, 마을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 및 원천징수, 세금 신고 등에 대해 인쇄물을 활용해 알려줬다.

또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한눈에 알아보고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엑셀파일을 따로 만들어 현장에서 실행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컨설팅에 참가한 한 마을학교 대표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마을학교 활동 공간에 직접 찾아와 우리들의 어려움을 듣고 어떻게든 지원해주려고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가장 머리 아픈 보조금 정산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줘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윤재현 교육장은 "2020년 공모



에 선정된 마을교육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마을교육공동체의 철학을 공유하고 계획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예산집행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강진 마을교육공동체가 강진 교육과 지역을 살리는 데 중심점이 되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

했다. 한편, 강진교육지원청은 중심마을학교를 통해 마을학교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자체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고 마을학교 간 협업을 활성화시키며, 마을학교 활동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시교육청, 18세 참정권 교육 준비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이상 학생유권자(2002년4월16일 이전 출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교육'을 '참정권교육'으로 명명했다. 광주의 학생유권자는 약 5,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4월15일 총선을 맞아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선관위와 업무협조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고,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시의회-시선관위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일 시민단체, 교수, 교육청, 마을학교를 통해 마을학교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자체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고 마을학교 간 협업을 활성화시키며, 마을학교 활동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육자료('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18세 유권자 선거 교육 자료')를 전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67교 고등학교 중 학생생활규칙에 정치활동 금지 및 징계 조항이 있는 학교는 총 38교이다.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 학생유권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유권자의 정치활동(정당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칙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도록 전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광주시교육청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으며, 학생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방문



지난 13일, 공익재단법인으로 설립자 변경을 앞두고 있는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에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과 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방문했다. 우승희 위원장과 이장석·이희제·최현주 의원과 목포제일정보중고 교사들, 학생들,

재단법인 향토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의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병원에서 막 퇴원한 김성복 교장과 전 학생회장과 현 학생회장을 포함 30여명이 참석했다.

우승희 위원장은 "학교법인과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학교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방문했다."고 말했다.

퇴학취소로 8일 졸업한 전학생 회장 이점구 씨가 "이전 주장을 그대로 조*희 교감이 불법교감"이라고 주장하자, 평영재 총동문회장은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감은 교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는데 왜 도교육청은 일반학교법을 적용해서 불법교감이라고 했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30억 자산을 공익재단법인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도 10억 자산을 탈취한 오명을 쓴 김성복(88세) 설립자 겸 교장은 "제발 억울한 내 사정 풀어줘서 편안히 눈감게 해주세요." 간청했다.

조영희 교감은 "모든 문제를 떠

나서, 이 학교만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반드시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희 교사는 "법인화가 되면 인원감축이 되고 임금이 삭감될 것이지만, 법인화에 찬성하는 것은 학교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철 학생회장은 "본인은 전임 학생회장에게 임명장을 받았기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조교감이 퇴진하면 학교를 잘 운영해 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우승희 위원장은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학교이다. 이 학교가 앞으로도 만학도의 배움터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금호평생교육관, '어울림 쉼터' 마련

금호평생교육관이 1층 중앙현관에 '어울림 쉼터'를 조성했다.

2018년부터 여름철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확장하고 시설을 정비해 '어울림 쉼터'로 상시 개방한다.

금호평생교육관 이정길 관리과

장은 "지역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답소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어울림 쉼터'를 마련했다"며 "더 많은 지역민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평생교육관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38개 평생

교육 프로그램, 무료 공개특강, 청소년 강좌, 정규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한 중학학력인정 성인교육, 전문직 퇴직자로 구성된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도서관 종합자료실, 열람실, 노트북실, 어린이실, 장애인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광주교육청, 지역 경제 살리기 동참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공동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각종 행사 취소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업계를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6일 분청 각과와 시교육청 모든 직속기관, 유·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공동체 살리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휴업일을 정하고 외부 식당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분위기 확산이 지역 식당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자 공무원들이 직접 이용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특히 각종 행사 취소로 화훼업계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봄맞이 사무실 환경 개선 차원에서 회의용 테이블과 업무용 책상에 꽃병 비치 등에 예산을 투입토록 했다. 직원 생일날에는 축하 꽃다발을 월 1회 준비하

고 솔선수범을 위해 오는 24·25일 신규 및 승진 공무원들에게 꽃 1,200여 송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집행은 오는 4월까지 완료토록 했으며 광주 상생카드 이용도 적극 권장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운동을 전개해 교직원들이 시내버스와 택시를 적극 이용하고 정거장 주변 상권 살리 기에도 보탬을 주기로 했다.

경계단계에 이른 혈액 수급을 위해 2월 마지막 주에는 교육청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단체 헌혈행사를 진행한다.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는 공가 등을 제공해 격려에 나설 방침이다.

정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은 강경하게 하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시민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